

## 제4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 개최

###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



본회는 지난 11월 18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4차 통합경영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초 계열사와 농가간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대의원 총회시 농가회원이 참여토록 하는 농가회원 대의원 선출 기준(안)을 마련한 것과 관련 이사회를 통해 대의원의 수를 확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가축계열화사업 제도개선, 2011 치킨 페스티벌 개최 검토 등 업계 현안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 육계산업 관련 정책은 본회와 협의토록

### 관계 기관에 협조 요청

본회는 정부측에 육계산업 관련 정책이나 제도 결정 시는 반드시 본회와 협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본회가 육계관련산업을 총괄하는 위치임을 강조하면서, 육계 계열화사업체는 물론이고 이미 1천여명 이상의 육계사육농가가 회원으로 가입, 명실상부한 생산자 조직임을 밝혔다.

따라서 육계산업 관련 과제는 계육협회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야 함을 천명했다.

또한 농가와 계열화사업체 간에는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각종 FTA 타결로 국제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을 내세우며 국내 닭고기 업계와 사육농가가 하나로 뭉쳐 상생해 나가야 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닭의 종류도 다르고 산업자체가 완전히 다른 육계산업과 산란계산업을 양계산업이라는 미명아래 한데 묶어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문성이 결여된 양계정책은 이미 시대적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현재의 실정에서 의미가 없는 만큼 과감히 탈피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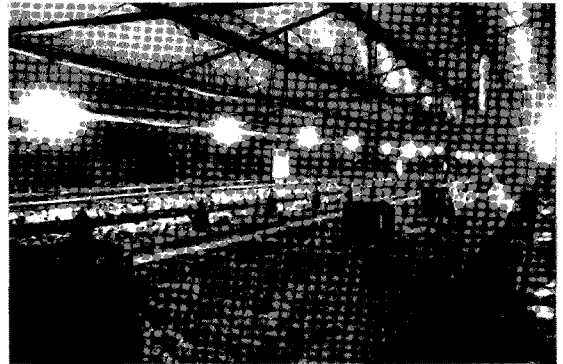
시장개방화에 맞춰 품목별로 전문화가 이루어져도 아쉬울 판에 현 체제로는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나가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차제에 육계농가와 닭고기 관련 계열업체는 본회 중심으로 단일화하고 이에 걸맞는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육계산업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본틀이 갖추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축산 전문지 기자 간담회 개최

### 육계산업 대표단체임을 재차 강조

본회는 지난 11월 12일 본회 회의실에서 축산 전



문지 기자 간담회를 통해 본회가 육계산업의 대표 단체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 서성배 회장은 “농가 회원으로 1천여명 이상을 모집한 본회는 계열업체와 농가가 포함된 육계산업을 대표하는 조직으로서 육계산업 관련 과제는 반드시 본회와 논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일본 등도 품목별로 단일화됐다”며 “경쟁력 향상을 위해 육계와 산란계는 별도의 조직에서 운영하는 것이 산업발전에 도움이 되고 대한양계협회와의 갈등구조도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원농가가 대의원, 이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계열주체와 농가가 자주 만나 문제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 2박 3일간 중국 대련에 위치한 육계 계열화업체를 방문 견학했다.

이번 방문은 (주)건지의 초청을 받아 (주)체리부로 최양상 이사와 함께 중국의 대표 계열화체인 ‘대성식품집단’과 ‘용성식품집단’의 도계장과 계약사육 농가 등을 둘러보았다.

서성배 회장은 “두 회사의 도계장들은 규모가 크고 위생관리가 잘 되어 있었으며, 부분육 처리과정은 기계화보다는 수백 여명의 인력을 투입하여 작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며 견학소감을 전했다(자세한 내용은 ‘르포’ P98 참조).

## 서성배 회장, 중국 육계산업 시찰

### 중국의 대표 육계 계열화업체 방문

본회 서성배 회장은 지난 11월 19일부터 21일까

## 일본 시마네현 시 발생관련

### 회원사에 상시방역 추진 철저 당부

지난 11월 29일 일본 농림수산성에서는 시마네현 야스기시 산란계농장의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확인으로 해당농장에 대한 가금 살처분,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각 시·도에 재래시장 및 가든형 식당 소독 등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철

새도래지 및 서식지에 대한 관리강화 등 AI 유입차단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본회는 회원사에 AI 예방을 위해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AI 방역대책 상황실 운영

#### 비상 근무조 편성

본회는 지난 11월 4일 개최된 AI 상시방역대책 추진상황 시도국장 회의 결과와 관련해 비상 근무조를 편성, AI 방역대책 상황실을 내년 4월 말까지 운영기로 했다.

상황실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관련 기관에서 발송하는 전파상황을 회원사 및 농가회원 등에 신속하게 전달하고 있다.

### 제7차 편집위원회 개최

#### 송년호 편집계획안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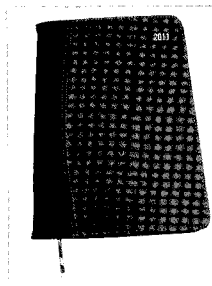
본회는 지난 11월 2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7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2010년도 12월호(송년호) 편집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12월호는 올 한해를 결산하는 송년호인 것만큼 2010년을 정리하는 의미의 내용이 구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 '월간 닭고기' 편집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는 12월 10일 본회 회의실에서 제8차 편집위원회를 개최한다.

### 2011년도 다이어리 제작

#### 회원사와 관련 업계에 배부



본회는 회원사 및 육계관련 기관·단체·업체의 주소록 등 유용한 정보를 수록한 2011년도 다이어리를 제작해 본회 회원 및 유관 기관, 단체, 업체 등에 12월 중 배부할 계획이다.

이는 육계관련 종사자들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빠른 업무처리 등을 위한 것으로 본회 회원사를 비롯 정부기관, 축산단체, 축산관련 교육기관, 관련 업체 등의 주소가 수록되어 있다.

특히 올해는 농가회원 전원에게 다이어리를 배부할 계획으로, 농가회원은 해당 계열사의 사육부나 지역소장을 통해 다이어리를 수령할 수 있다.

이번 다이어리는 지난해보다 더 고급스러운 소재와 검정색, 갈색 등 두 가지 색상으로 제작해 이용성을 높였다. <MKC>